



재미 없으면 '꽝'

## 화장품도 '퍼놀로지' 바람

▲ 퍼놀로지란?  
재미(FUN)과 기술(TECHNOLOGY)의 핵심으로 제품의 기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강조한 것을 말한다. 고객에게 제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감성마케팅 중 하나다.

단정한 용기 일색이었던 화장품 용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장난감인지, 화장품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제품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더해 여성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제품이 쏟아 나오고 있다.

'기능'을 우선시했던 화장품 업계에도 기능 뿐만 아니라 재미와 디자인까지 더해진 '퍼놀로지(funology·fun + technology)'제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대평양 헤라 광주 영업팀 정은영(30)씨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고 해

### 지갑모양 파우더 팩트·전류 흐르는 제품

###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능성 더해져 인기

의업체와도 경쟁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삽품을 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의 경우 단순히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높다"고 설명했다.

#### ◇ 화장품 맞나요?

'모라시비나 파우더 팩트'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분홍색 가죽 케이스만 보고 지갑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어엿한 '화장품'이다.

생활자외선(SPF15)은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녹차와 카모마일 성분이 포함돼 있다.

매니큐어인지 블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류'가 흐르는 아이패치 헤라 '에이지 어웨이 프로그램'. 이처럼 고객들의 호기심유발과 함께 기능성을 더한 '퍼놀로지 제품'이 화장품업계에서도 인기다.

셔인지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 제품도 있다. '하드캔디 스위트 치크'는 매니큐어처럼 용기 안에 내장된 슬립을 이용해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볼에 적당량을 바른 뒤 손으로 살살 펴발라주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보송보송하게 연출할 수 있다.

전동 브러시가 내장돼 있어 속눈썹에 대고만 있어도 마스카라를 칠해주는 헤라의 '마스카라 오토매직'과 압축된 파우더를 즉석해서 갈아서 사용하는 오후 '에센스 플러스 그레이딩 파우더' 역시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틀을 벗어난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 ◇ 이런 제품도 있네?

자외선 차단제는 손으로 바른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자녹스의 '화이트 X-II 플러스 선발'은 용기에 밤형태로 들어있어 내장된 퍼프를 이용해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

DHC '네일 스프레이 쿠 드라이'는 매니큐어를 빨리 마르게 해주는 제품. 올리브 베진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 손톱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중간중간 화장을 수정하는 것이 귀찮은 여성이라면 베네핏의 '쉬 라크'를 추천한다. 화장을 마친 후, 눈썹과 아이라인, 마스카라 위에 덧바르면 번지지도 않을 뿐더러 처음 화장 그대로 고정시켜준다.

국내 최초 전류가 흐르는 화장품도 등장했다. 헤라의 '에이지 어웨이 프로그램'은 전류개선 기능성 세럼의 빠른 흡수를 돋는 전류 패치를 이용해 주름개선 효과를 높인다. 한 번 사용으로 8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 ◇ 독특한 화장품 액세서리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이 번거로웠던 여성이라면 헤어전용 타월을 활용할 듯 하다.

미샤의 '헤어 터번'은 수건보다 흡수력이 3배 이상 높은 초극세사 제품으로 머리카락의 손상없이 물기를 빠르게 흡수한다.

싸이니의 '스위트 베를 세안방'은 풀클렌징의 거품을 풍성하게 해주는 제품. 적은 양으로 풍부한 거품을 만들뿐만 아니라 생크림처럼 풍부한 거품을 이용해 세안을 하면 세정력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베네핏 쉬라크

하드 캔디

미샤 헤어터번

모라시비나

오후



■ 선글라스 트렌드  
선글라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황사철에는 먼지나 꽃가루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해 백내장 예방 효과도 크다. 그렇지만 가능한 측면만 보고 선글라스를 구입할 수는 없는 일. 기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선글라스로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 오버사이즈에 톡톡 튀는 컬러 유행

올해는 프레임이 큰 빅사이즈의 복고풍 스타일이 유행할 전망이다. 소재도 빨강, 노랑 등 톡톡튀는 컬러의 플라스틱이나 메탈(금속) 등으로 다양하다.

장우혁 등 남성 연예인들이 하고 나와 주목 받았던 보잉 선글라스(일명 라이언) 역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고, 헤이트 의상의 인기와 더불어 화이트 프레임에 파스텔 컬러의 선글라스도 유행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선글라스 구입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스타일과 조화여부. 얼굴이나 의상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은 선글라스를 쓸 경우 단점을 두드려져 보이게하거나 면내기용으로 쓴 선글라스는 오히려 죄스러워 보이게 할 수 있다.

얼굴이 둥글고 큰 사람에게는 사각 프레임의 선글라스가 좋다. 사각 프레임의 선글라스를 블랙이나 화이트의 정장에 매치하면 지적인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

역삼각형 얼굴형에 는 빅사이즈의 xkdnjs형 선글라스가 어울린다. 일명 오드리 헬튼 선글라스로 불리는 타원형 선글라스는 징장과 캐주얼 어느 의상이나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징점이다.

의상뿐만 아니라 선글라스에도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사용되면서 예전의 블랙과 브라운 계열을 벗어난 다양한 컬러의 선글라스가 등장했다.

컬러는 자신의 피부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톤이 밝은 사람은 옅은 녹색, 보라색, 분홍색, 노랑 등 파스텔톤 컬러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피부톤이 어두운 경우에는 골드 컬러의 메탈 선글라스를 추천한다.

광주안과의 김현동(38)원장은 "선글라스 구입시 눈 보호 기능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눈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UVA, UVB가 모두 차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렌즈의 색이 짙을 경우 시야를 어렵게 해 사고의 위험에 있는 만큼 거울을 비춰 눈동자가 비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521-1140, 521-0110 010-602-2532  
(부동산인부동산, 대인동 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협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럿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기공인중개사

☎ (010) 324-8216 010-501-699-0986  
(부동산인부동산)

### 상가부지 및 삼기부지

총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증상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극남로 대지 20평 2층 21억

운암동 중심상가로점 3평원 170만

남성동 대지 25평 2층건물 29억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로점 30평 150만

봉천동 터미널 대로점 28평 150만

신무지구 상업지 120평 150만

주월동 대로점 120평 140만

제지로점 120평 140만